

# 강남스타일과 노벨상



글 | 李門浩  
(Lee, Moon Ho)

- 전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 전기통신 기술(세일) 동경대 공박
- WCU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이동통신사업단장

E-mail : moonho@jbnu.ac.kr

“딱 4분의 강남스타일 노래”,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2위 ‘핫 100’에서 2위(2012.10.11 현재), 중국 최대 포털 음악사이트 ‘바이두(百度)’ 음악차트 ‘톱 500’에서 1위에 올랐다. ‘강남스타일’에 전 세계가 미쳐있다. 글로벌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아이돌 중심의 케이팝을 능가하는 속도와 아시아를 넘어 북미·유럽·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권을 ‘접수’한 자체도 놀랍지만 사그라질 줄 모르는 ‘뒤틀림’은 무서울 정도다. 국내보다 해외 반응이 뜨겁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처럼 폭발적 인기 속에 ‘강남스타일’ 하나로 싸이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경제적 효과를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2년 8월 28일자 최신호 오프라인 잡지 월드 뉴스 1면에 ‘강남스타일’과 싸이를 소개했다. 타임은 “뮤지션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십중팔구 루저가 돼 있을 것”이란 제목과 함께 싸이를 비중 있게 다뤘으며 ‘강남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상할 정도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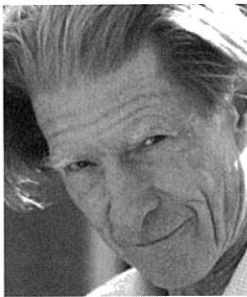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력 매체인 ‘타임’에, 그것도 1면을 장식했다는 사실은 굉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덜한 건 CNN·ABC·로이터통신·허핑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 등 이미 수많은 해외 언론에서 앞다퉀 소개했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뮤직 블로그 코너를 통해 “당신이 아직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한국의 중독성 있는 노래를 듣지 않았다면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강남스타일은 피할 수 없는 폭발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그날은 계속될 것”이라고 까지 극찬을 쏟아냈다.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다. 미국 LA 다저스 홈구장에 ‘강남스타일’이 올려 퍼지고 5만여 관중이 싸이의 ‘말춤’을 따라하는가 하면 미국 프로 풋볼 선수가 터치다운 후 동료들과 함께 ‘말춤’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는 수백 명의 군중이 '말춤'을 추는 플래시 몹 이벤 트가 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전 세계 를 휩쓴 스페인 그룹 '로스 텔리오'의 라틴 댄스곡 '마카레나'를 능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이돌 스타도 아닌, 게다가 전형적 '강남스타 일'의 외모도 아닌 싸이가 세계를 평정할 수 있었 던 건 "4분 남짓한 뮤직비디오와 유튜브로 대표되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때문이다. '새'로 데뷔할 때부터 이른바 '엽기'와 '코믹' 코드로 일 관했던 싸이는 '강남스타일'에서 가장 싸이다운 모 습으로 돌아갔다.

위 이 글들은 신문 잡지에서 인용했다.



2012년 노벨의학상 수상자  
영국 케임브리지 거든연구소  
존 거든 경(79세, 1933년생)



2012년 노벨의학상 수상자  
일본 교토대학교 야마나카 신  
야 교수(50세, 1962년생)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국 소설가  
모옌(57세, 1955년생)

한편, 요사이 저녁 8시면 스웨덴 한림원에서 발 표되는 2012년도 노벨상 소식은 우리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한다. 오늘(10월 11일) 저녁 노벨문 학상은 중국 소설가 '붉은 수수밭'의 작가 모옌(莫 言, 57,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이 받았다. 초등 5 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서 일하다 뒤늦게 공 부해서 초기엔 사실적 필치 작품을 쓰다가 중기엔 농촌의 역사 현실을 그렸고, 지난해 한국서 만해대 상을 수상했다. 10월 10일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에 250명 중 250등을 한 영국 거든(79) 교수와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50) 교수가 받았다.

체세포로부터 유도만능줄기(iPS)세포를 만든 공 로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존 거든(79)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山中伸彌·50) 교토대 iPS세포 연구소장. 의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두 '천재 과학자'지만 그들 의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영국과 일본 언론들 은 두 사람이 "수많은 실패에 좌절했고, 좌절이야 말로 성공의 아버지임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소개 했다.

거든 교수는 일반인 시각에선 비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아이였다. 8세 때 지능지수(IQ) 검사에서 형 편없이 낮은 점수가 나왔다. 거든 교수는 "오렌지 를 그리라는 문제에 동그란 과일을 그린 남들과 달 리 줄기에 매달린 모습을 그렸다. 그런 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튼스쿨에 진학해서도 과학 지진아였다. 16세 때 그의 생물과목 성적표는 250명 중 250등이었다. 당 시 생물교사는 거든의 성적표에 "과학자가 되고 싶 어 하나 지금의 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

(ridiculous).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에게 시간 낭비”라고 평가했다. 별수 없이 거뒀은 고전문학을 전공으로 택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동물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10여 년 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옥스퍼드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던 1962년 사상 최초로 개구리 복제에 성공해 과학계를 발각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는 체세포를 이용한 iPS세포 연구의 초석이 됐다.

여든을 앞둔 거뒀 교수는 아직도 매일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에 출근해 풀타임으로 근무한다. 그는 63년 전에 받은 성적표를 끼워놓은 액자를 책상에 세워두고 “실험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 성적표를 들여다보면서 과학에 재능이 없다던 선생님의 말이 옳았음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한때 자신을 절망하게 했던 말이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음을 고백한 셈이다.

야마나카 소장도 자신의 연구자 인생을 “실패만 겹쳐 20여 년 동안 계속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자평했다. 고베(神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 오사카(大阪)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 의사로 있을 때는 수술을 잘 못해 선배들로부터 ‘자마나카’로 불렸다. ‘야마나카’란 성에 일본어로 방해자·걸림돌을 뜻하는 ‘자마(邪魔)’를 섞어 만든 것이다. 실제 그는 10분가량이면 끝나는 간단한 양성종양 적출수술에 1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결국 정형외과 의사되기를 포기한 그는 연구자로 방향을 틀었다.

10월 9일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양자컴퓨터 개발에 기초를 닦은 프랑스 학술회원의 세르주 아로슈(Serge Haroche, 68) 교수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데이비드 와인랜드(David J. Wineland, 68)

박사다. 이 두 사람이 개별 양자 미립자를 파괴하지 않은 채 직접 관찰하는 기법을 시연함으로써 양자 물리학 실험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벨 위원회는 또 이 두 사람이 세슘 원자시계보다 100배 더 정확한 광(光) 시계와 미래 세상을 주도할 초고속 컴퓨터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절대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또한 로버트 J. 레프코위츠(69)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 교수와 브라이언 K. 코빌카(57) 스탠퍼드 의과대 교수를 201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두 사람은 ‘세포와 감성’(cells and sensibility)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았다”며 “G단백질 수용체의 내부작용을 밝히는 획기적 발견을 했다”고 밝혔다.

노벨상 연구업적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 미치도록 몰입한 연구 성과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마찬가지다. 우리 연구계도 ‘미친 몰입자’가 많이 나와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원고접수일 2012. 10. 12)

◎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의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 육성 사업 (R32-2012-000-20014-0)’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도전)(2012-00252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